

이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 시험 (2007년 11월)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1. 다음 글을 한국어로 옮기시오.

Thomas Kuhn introduced the concept of a paradigm in the early 1960s to describe an all-embracing pattern or model of scientific knowledge. In spite of his many cautions to Hazel Henderson not to over-generalize in applying the concept to the process of social transition, she maintains that it is a useful metaphor that allows us "to re-conceive our situation, re-frame old problems and find new pathways for change." This has become an imperative today, she insists, as we move from the industrial age into an as yet ill-defined "post-industrial" future. We are already seeing signs of an emerging, "post-Cartesian" scientific worldview, rooted in biological and systemic life sciences rather than inorganic, mechanistic model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world a similar shift has taken place as citizens have discovered fundamentally new approaches to managing resources, regulating markets, caring for the environment, providing health care and other human services, and conducting their political affairs. These changes are, in Henderson's view, part of an emerging paradigm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terconnectedness, redistribution, complementarity, uncertainty, and change.

Traditional economics still has not fully recognized the costs involved in free markets and unsustainable development, Henderson says. It leads inevitably to what she calls a "treadmill," or vicious cycle, where the traditional GNP-measured economy fails to account for hidden social costs, which builds up a backlog of social needs, which increases local costs of unemployment, pollution, crime, etc., which in turn fosters increased need for taxes, which raises inflation and budget deficits, which aggravates competition and wears down the currency market, which leads to a speculation bubble or recession, which leads to calls for more economic growth, which leads back to measuring economic well-being according to such inadequate indicators as the GNP and the GDP.

2. 다음 글을 영어로 옮기시오.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사회투자라는 단어는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라는 개념으로부터 왔는데, 이는 70년대까지의 전통적 복지국가와 90년대 중반까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거쳐 90년대 말에 유럽에서 등장한 새로운 국가 역할의 정의이다. 다시 말해 두 가지의 단점을 모두 절감한 유럽 사회가 내놓은 새로운 대안이라는 뜻이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오늘날처럼 빠르지 않던 복지국가 시대에는 평생 하나의 직업에 헌신하고 나면 여생이 보장되었지만 오늘날은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사회투자 정책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평생 두세 개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노동시장에의 적응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인적 자본은 사장되고 투자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투자 정책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짝을 이루어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투자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나 여성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부문에서 이들을 흡수하면 좋지만 당분간은 정부가 알선하는 일자리가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사회투자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궁극적 열쇠는 지역의 행정능력에 달려 있다. 과거 복지국가의 현금 지원 사업에서는 행정 담당자가 누가 빈곤한지만 정확히 판정하면 되었다. 하지만 사회투자 정책에서는 빈곤을 만들어낸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을 조사하고, 인적 자본의 축적 정도를 평가하고, 노동시장 진입 훈련을 시행해야 하며, 일자리와 연계시키고, 직장을 제대로 다니는지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 지역의 고용안정센터, 보건소, 사회보장 관련기관 등 각종 하부기관들의 행정역량이 강화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복지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충분히 경험한 서구에서 나온 이 전략을 기초적 복지제도가 완성되지 못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오는 엄청난 구조적 문제를 전통적인 현금지원 정책만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사회투자 정책이 전통적 복지프로그램의 상징이던 기본권을 경시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 환경을 조성해주자는 사회투자 정책과 고기를 직접 주자는 전통적 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인간의 기본권을 더 잘 보장하는지를 지금의 한국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 시험 모범 답안 (2007년 11월)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1. 영한 번역

토마스 쿤(Thomas Kuhn)은 과학적 지식의 포괄적인 패턴 혹은 모델을 묘사하기 위하여 1960년대 초에 ‘표준적인 틀(paradigm)’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토마스 쿤이 헤이즐 헨더슨(Hazel Henderson)에게 사회적 전환 과정에 이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일반화하기 말도록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헨더슨은 이 개념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재인식하고 오래된 문제들을 재규정하고 변화를 향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유용한 은유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녀가 주장하기를 이 세 가지 일은 우리가 산업시대에서 아직 규정이 제대로 안된 ‘후기 산업’의 미래로 이동해감에 따라 오늘날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탈 데카르트적인 과학적 세계관’이 출현하고 있는 징조를 목도하고 있다. 이 세계관은 비유기적이고 기계적인 모델이 아닌 생물학적이고 전반적인 생명 과학 분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치·경제적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자원을 관리하고, 시장을 규제하고, 환경을 돌보고, 의료서비스와 기타 인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시민들이 발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헨더슨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들은 상호 연결성, 재분배, 보완성, 불확실성 그리고 변화라는 원칙들에 기초하여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표준적인 틀의 일환이다.

전통 경제학이 여전히 자유 시장과 지속 불가능한 개발에 수반되는 비용을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헨더슨은 말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헨더슨이 ‘첻바퀴’, 다시 말해 악순환이라고 일컫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 속에서 전통적인 국민총생산(GNP)으로 측정되는 경제는 숨겨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더욱 쌓이게 되고 그 결과 실업, 오염, 범죄 등 지역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세금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예산적자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경쟁은 심화되고 화폐시장은 점차 약화되며, 이로 인해 투기거품 또는 경기후퇴가 초래되고, 이는 다시 더욱 큰 폭의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날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총생산과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부적절한 지수에 따라 경제의 건실함을 측정하는 작업으로 회귀하게 된다.

2. 한영 번역

The term "social investment," which is still unfamiliar in Korea, derives from the concept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which had existed until the 1970s, went through neo-liberal changes until the mid-1990s and developed into a social investment state in the late 1990s in Europe, defining new roles of a state. That is to say, the social investment state is a new alternative presented by European society, which had acutely experienced the shortcomings of the two previous systems.

During the era of the welfare state, when the pace of social change was not as fast as today, there was a guarantee of a comfortable life after devoting one's lifetime to one job, but today this is not the case. Therefore, one of the important aspects of a social investment policy is to promote people's adaptability to the labor market and employability in a new economic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o have two to three jobs in a lifetime. However, when the labor market fails to provide jobs, human capital can remain idle, and the effectiveness of investment can decrease. That is why a social investment policy must be implemented in tandem with a policy to create jobs. In the initial stage of a social investment policy, the underprivileged or women, who find it difficult to enter the labor market, are likely to be its beneficiaries. It would be desirable

if the private sector could absorb these people, but for a while jobs arranged by the government will inevitably be a realistic alternative.

The ultimate key to the success of a social investment policy consists in the administrative capabilities of each area. In the former welfare state, when they provided cash assistance, administrators had only to accurately determine who was poor. In contrast, in implementing a social invest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nvironment of families and local communities that gave rise to poverty, evaluate how much human capital is accumulated, train people to get ready to enter the labor market, link the policy to jobs, and carry out a follow-up check on whether the beneficiaries of the policy go to work properly.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capabilities of various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job security centers, public hospitals, and social security agenci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united systematically.

The social investment policy was devised in the West, which had adequately experienced the merits and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welfare system. Therefore, critics argue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policy to Korea, which has yet to establish a basic welfare system.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traditional cash assistance alone cannot deal with enormous structural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low fertility, and the aging population. Other critics say that the social investment policy disregards basic rights, which were a symbol of the traditional welfare program. In today's Korea,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of the two policies guarantees basic rights better: the social investment policy aimed at teaching people how to catch fish and creating a suitable environment, or the traditional welfare policy designed to give people fish directly.